

## 증산의 동음

어느해의 7월이었다.

찌는듯 한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방직공장(당시)을 찾으시였다.

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당은 인민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임무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으며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복종시켜 풀어왔다고 하시면서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.

그러시고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고 더 많은 옷감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로동자들이 자기 옷감을 짜는 심정으로 천생산에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.